

# 辨理士 合格手記

## 나는 이렇게 해서 합격 했다



尹 義 相

〈第24回 辨理士試驗合格〉

最近들어 우리나라에서도 特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企業의 大小를 불문하고 權利에 대하여 민감해져 出願이나 異議申請등이 증가되고 라이선스 業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時代에 企業間의 競争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獨占權을 확보하거나, 他社의 獨占權에 대한 對策을 樹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特許管理가 必要한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技術競争이 극심한 社會에서는 特許管理의 良否에 따라 企業의 存亡이 左右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企業의 特許管理要員은 물론 一般 人들의 辨理士試驗 希望者들이 부쩍 늘고있다.

이에 本誌는 이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辨理士 試驗에 合格한 3人的 合格 手記를 3회에 걸쳐 連載하기로 했다.

〈編輯者 註〉

### ■ 친구 K에게

이제 막 工業所有權法 중 特許法을 구입하여 생소한 어휘와 접하고 있을 친구 K에게.

“훗날 나도 「發明 特許」誌의 合格手記欄을 장식할 수 있겠지”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오기로 버텨온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4戰5起의 의지로 지내온 경험이 네게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쓴다.

물론 나에게는 職場도 없이 지내온 시절이었고, 너는 職場에 몸담고 있으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글이 네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의문이다.

지난 81년. 그러니까 내가 大學 4학년이었을 때다.

과사무실로 온 공문중에 辨理士試驗公告를 봤어. 그때 L선생님께 여쭙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어려운 試驗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았어. 試驗을 볼 의향도, 무엇에 종사하는 職業인지도 모르는 상태라 컷전으로 흘려보냈어.

卒業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라 무엇인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였어. 그때 나는 군면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동기들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지. 大學院에 진학을 할까, 취업을 할까 망설였지만 너도 알다시피 지난 4년 동안 공부한 것이 있어야 進學이고 就業이고 할것 아니냐.

C가 근무하는 창원의 모회사에 면접시험을 본 결과 不合格. 몇 군데 취직試驗을 본 결과도 역시 불합격.

進學하기로 결심하고 卒業 후 책 보따리를 싸 들고 서울로 향했어.

82년 1년 동안 英語와 專攻공부를 하며 느꼈어. 학교시절 지금의 반만 공부했어도 1등을 했을거라고.

왜 학교다닐 때는 공부와 결별하고 그놈의 막걸리와 붙어 살았는지!

언젠가 工業數學 시간에 매일 먹는 술은 먹는 게 아니고 쳐먹는 거라고 말씀하시던 L교수의 말씀에 모두들 나를 쳐다보고 웃던 때였으니.

아뭇튼 졸업 후 1년 전공 공부한 것이 훗날 辨理士 2차시험에 꽤 도움을 줬어.

그해 1~2월 선배 S형과 함께 S大 大學院에 보기 좋게 낙방하고 83년 모교 大學院에 入學했지. 학교시절 공부안한 것이 후회되어 열심히 공부좀 해보겠다고 進學했지만, 동기들이 복학하고 어울리다 보니 또 슬 좌석엔 결석하지 않는 내가 되더군.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더군.

시간이 지날수록 지도교수와의 사이는 멀어지고, 집에서는 남동생이 복학할 시기가 됐고, 막내동생은 大學에 진학할 때였으니 한 집안의 장남인 내가 나 혼자 大學院을 마치자고 동생들을 희생시킬 수가 없어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지.

그해 여름일거야. 第20回 辨理士試驗 公告를 보고 응시하겠다고 내게 말하고 신문에서 본 삼화서적이라는 중앙대 앞에 있는 서점(당시 청주에는 工業所有權法에 관한 책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됨)에 가서 工業所有權法(이수웅著) 한권을 구입했어.

그 책 한권이 4년을 버티오게 한 계기와 오기를 심어주게 한 동기가 될 줄은 몰랐지.

구입한 책 2번 읽어보고 試驗場으로 향했어.

경험삼아 그리고 논술형 문제가 어떤 것인가 알아보겠다는 의도에서 였어.

### ■ E 女高 試驗場

이런 試驗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준 곳이지.

답안지 10매. 시간 100분.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그 많은 답안지와 시간을 주는지 모르겠더군. 試驗 시작전 칠판에 웬 종이 뭉치를 붙이더니 시험시작과 동시에 붙인 테이프를 빼니 큰 흰종이가 보이더군. 주먹만하게 쓴 글씨가 問題래. 앉아 있어 봤다는데 의의를 두고 마지막 시간까지 있어봤지.

“젊은이가 5년 投資할 가치는 있다”는 감독관의 말을 뒤로하며 청주로 향했어.

그때 試驗場에서 내게 말했지. 5년 내에 合格하겠다고. 그후 大學院 2학기를 마치고 학과를 포기했지. 솔직히 말하면 돈(등록금) 내지 않았

으니 그만두라더군.

84년 3월 미등록을 이유로 제적 당한거지.

이미 학교는 관심밖였어.

마음은 辨理士試驗에 있다는 자신을 발견한거지. 법과 전공을 모두 요구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낀거야.

84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개신동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고 辨理士의 길을 내딛기 시작했어.

### ■ 第21回 辨理士試驗

해 보겠다고 시작한 공부는 틈이나면 술과 어울려, 이수웅著 工業所有權法 5회독, 김학제·김연수 共編, 實例工業所有權法 2회독과 아카데미 Toefl 한번 보는데 그치고 試驗場으로 향했지.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평균 6장 정도 쓰는데 그쳤지. 그때 까지만 해도 무식한 촌놈이라, 試驗본 후 점수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지도 모른거야.

소득이라면 지난 해보다 答案紙 매수가 배로 증가했다는 거지.

試驗후 부모님 눈치도 있고 하여 농사일을 거들며 몇군데 이력서를 써 봤으나 오라는 곳이 없더군. 몇달 허송세월 보내고 보니 좀 더 열심히 하면 辨理士試驗에 合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더군.

84년 11월경 청주로 나와 아버님께 난생 처음 편지를 썼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식이 되겠다고. 그러니 1년만 더 보살펴 주십사 하고.

학교 근처의 개신동에 다시 자취방을 얻었어.

먹는 것은 개신동 아주머니께 신세지기로 하고. 아주머니께서 내 형편 잘 알고 계셨던 터라 쌀만 더 먹을 것 가져오면 밥 해주마 하시는 배려로, 단지 친구들이 하숙했던 집 아주머니라는 안면으로 재우 어머니 신세를 전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아주머니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 ■ 第22回 辨理士試驗

工業所有權에 대한 책을 있는대로 전부 구입

했어. 전에 보던 것 외에 意匠法解説(윤종렬 編譯), 主觀式工業所有權法要解(김학제, 김연수 共編), 特許法概說(윤동길의 2人譯), 韓國商標制度의 解説(남계영 외 1人著) 등이었어. 英語는 이재옥著 高試綜合英語 한권을 추가했지.

무식하게 하리라 맘먹고 학교도서관을 찾기 시작했어. 그 시절 같이 공부하는 K라는 학교 후배를 만났지. 서로 경쟁이라는 심리도 작용하고 틈있을 때 토론도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얻었어.

하루하루의 일과표를 만들었어. 일주일 단위로 그날 계획은 그날 끝내는 方法으로 만약 計劃에 어긋났을 때는 그 부분은 남겨두고 다음으로 進行하는 식이었지.

그리고 원서접수 전까지 나름대로의 노트를 만들었어.

우선 기출문제를 내 나름대로 답안작성순으로 目次(소제목)만 나열했지.

그렇게 정리하며 기출문제는 책(모든책)에 표시했어. 그것을 끝내고 책을보며 표시되지 않는 부분은 문제로 만들어 정리하니 바인더 노트 한권이 되더군.

한달을 소비했지. 그리고 틈나는대로 참고열람실의 「特許와 商標」「發明特許」誌를 보며, 필요부분은 복사하여 다시 노트 한권을 만들었지.

시험보기 한달전까지는 정리한 노트와 책을 병행하며 읽어나갔지. 시험 한달전부터는 高試 答案紙를 구입하여 문제를 풀어가며 노트의 目次에 중점을 두었어. 노트를 보며 필요한 法條 文을 暗記하는 식으로. 자신이 생겼어.

둘째날 實用新案法까지는 초안도 잡지않고 써 내려갔어. 이 정도 썼으니, 60점은 받겠다고 자신했지.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마지막 英語試驗 40분에 분명히 40문제인데 내 눈에는 100문제도 더 되는것 같더군.

혹시나 하고 알아본 결과는 特許法 51, 商標法 68.5, 意匠法 56.5, 實用新案法 66.5로 4법 평균은 60.6, 英語는 차마 여기 저기가 부끄러워 그만두겠어. 난생 처음 그런 점수를 받아봤어.

이제는 정말 자신이 생기더군. 英語만 좀더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기가 생긴거지. 그만치 공부해 놓고 포기하기도 아깝고.

## ■ 發表 후 旅行길에

친구들 찾아다니며 여비를 마련하고 다음으로 가는 식으로 포항, 울산, 부산, 창원, 구미를 거치며 위안과 술 대접을 받고 왔어. 모두들 고마운 놈들이지.

농사일이 바쁘니 집안일 좀 거들다 다시 청주로 왔어.

그냥 물러설 수가 없어 다시 挑戰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結婚問題가 앞을 가리더군.

너도 알다시피 벌써 몇 년째 사귀어온 지금의 아내와 혼인문제를 양가 어른들이 시두르시는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지금의 아내와 상의한 결과 結婚은 1년 뒤로 미루고 공부에만 전념하기로 했어.

좋다. 辨理士試驗에 합격하여 내게 結婚선물로 合格證을 안겨주마하고 혼자 이를 물었지.

몸 안의 독기가 살아나기 시작한거야. 이제는 내 자신과의 싸움으로 변했어.

다시 방을 구하고 새로지는 중대 도서관에 열심히 개근하기 시작했지.

아침 4시 기상. 도서관 앞에 책가방을 놓고 合格을 구호로 외치며 학교를 한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를 갈았지.

농담조로 얘기하는 친구들의 말도 이제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어. 학교다닐 때는 지겹게 안하더니 졸업 후에 웬 병아리 감별사를 하겠느냐고 하는 소리가 내 자신을 채찍질 하게 했지.

## ■ 第23回 辨理士試驗

모든 것을 잊고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로 노트도 다시 정리하고 方法을 바꿨지. 아침 후 점심 때까지 자고 밤에 공부하는 법을 택했어. 실수였던 것 같아.

두달 정도 그렇게 하고 試驗 한달전 원상태로 돌리려니 1주일은 걸리더군. 體力은 극도로 쇠

약해지고 낮에는 졸음과 싸우기 일수였어.

試驗 한 달전부터 考試答案紙 50 권을 만들어 연습에 주력했어.

꼭合格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몸은 가축만 남기며 23회를 치렀지.

시험 도중 이것이 쓰러지는 것인가 보다 하는 감각을 느꼈어. S고대 넘어 산위로 주위의 얼굴들이 용기를 주더군.

무사히 끝냈지.

자신 있더군. 분명히合格했다고 자신했지.

그런데 發表日이 가까와지며 불안해지더군. 너무 자신하는 그 자체가 불안한거야. 어머니도 너무 큰소리 친다고 우려하시고. 그 우려는 며칠 후 현실로 나타났지. 發表나기 며칠전 붓짐을 싸가지고 여전히 반겨주는 친구들을 찾아나섰지.

發表前 날 서울착으로 정하고. 發表前날 포항에서 서울로 와 전화하니 特許廳 지도과 직원이 하는 말은 “안되셨네요”더군. 하늘이 노랑더군.

청주로 향하는 고속버스 속에서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거야. 도대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또 英語에서 떨어졌나 하는 생각뿐이고.

어떻게 몇달을 지냈는지 모르겠어.

86년 11월 30일 작년에 미룬 結婚을 했어. 아내가 職場을 다니고 다시 挑戰하기로 하고.

23回 辨理士試驗 結果는 特許法 51, 商標法 51, 意匠法 71.5, 實用新案法 60, 英語 60, 평균 58.7로 패인은 商標法. 제일 잘 봤다고 생각한 商標法. 적어도 65점은 예상했는데 상상밖이었어. 분석결과는 정확한 法條文 暗記가 안되어 있다고 냈어.

개신골에 발 디딘지 10년. 무엇인가 이루어 나가리라 생각했던 것이 무위로 끝나고 우암동으로 왔지.

## ■ 第24回 辨理士試驗

아내는 職場으로, 나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독서실로 향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어. 이제는 자신도 없고 다만 담담한 심정뿐이더군. 구석자리를 잡고 침묵의 행진을 시작했거지. 1次試驗 發表나기까지 독서실 어느 누구와도(실장님 제외) 말 한마디 하지 않았었으니까.

다시 노트를 정리하고 法條文 暗記에 주력했어. 辨理士試驗에서 法條文의 정확한 理解와 暗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야 혼자 깨우친거지.

가능한한 審査基準(특히 意匠法)까지 모두 暗記하고 모의시험에 주력했어.

日本 辨試의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特許法 70문제, 商標法 50문제, 意匠法 60문제, 實用新案法 40문제를 만들어 문제풀이에 중점을 두고 공부한 한해였어. 試驗場所가 변경되어 낯설은 곳이지만 왠지 차분했어. 초안을 잡고 열심히 쓰고 검토까지 해가며 이틀을 지냈지.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不合格 될 것도 같지 않더군.

特許法 64, 商標法 63.5, 意匠法 68.5, 實用新案法 57.5, 英語 65로 1차를, 화학야금 62.5, 물리야금 66.5로 2차를 통과하고 면접을 마쳤지. 최후로 合格通知書를 받고나니 후련하더군.

나도 무엇인가 한 가지 해냈다는 사실에 자신이 대견스러워 진거지.

## ■ 주위의 모두에게 感謝

이제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나는 떨어졌으면 다시 挑戰했을 놈이라고 하더군. 글썄, 大學 1學年 入學했을 때 학과장님이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하신 말씀중 “成功하려면 고립제를 거쳐라”하시던 기억이 새롭군.

단순한 생활을 거치지 않고 成功할 수 있을까?

工業所有權과 도서관밖에 몰랐던, 신문에서 특자만봐도 섭득했던 시절을 그리며 내 얘기를 줄이려 한다.

업자시절 술 사주며 위모해 준 선배님과 친구들, 그리고 2년여를 뒷바라지 해주신 개신동 아주머니, 자식이라고 믿고 돌봐주신 부모님, 내가 가는 길이라면 어디라도 따라 가겠다는 사랑하는 아내 선옥에게 感謝를 드리며, 곧 태어날 우리 아가에게 생일선물로 辨理士合格證을 주려 한다.

K야, 나는 너를 믿는다. (∞)